

한진중, 유럽서 2.7억弗 상선 수주... 경영정상화 쾌속질주

5500TEU급 컨테이너선 4척 계약
조선 사업 재편·상선 경쟁력 입증
“공격적 영업으로 지속 성장 모색”



한진중공업 컨테이너선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이 상선 수주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새 출발을 알렸다.

한진중공업은 유럽 선사와 총 2억 7000만 달러 규모의 5500TEU급 컨테이너선 4척 건조계약을 체결해 시장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인수합병 이후 첫 상선 수주다.

한진중공업이 해군함정이나 특수목적선이 아닌 일반 상선을 수주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6년만이다. 지난 2016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이후 해군함정과 광공선, 탐사선 등의 특수선을 중심으로 영업을 펼쳐왔다. 당시 조선시황 침체로 일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강점을 가진 사업부문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전 세계 조선시황이 회복세를 보이며 상선 시장에서 신조 발주가 늘자 한진중공업은 그간 자구노력을 통해 기술력과 품질, 납기, 생산성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라 최신 선형과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시장 재진입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 역시 에너지 절

감 효과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설계된 최신형 55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 운반선이다.

한진중공업은 이번 계약 성사로 중형급 컨테이너선 시장에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의 신호탄도 함께 쏘아 올렸다.

특히, 지난 달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

리 짓고 새 출발과 함께 정부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을 수주한 데 이어, 컨테이너선 4척이라는 기대 이상의 수주 성과를 올렸다. 이로써 조선부문 사업 재편과 상선 경쟁력 입증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

한진중공업은 향후 조선부문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선뿐 아니라 중소형 LNG선과 LPG선,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아프리카급 원유운반선 등의 수주에 영업력을 집중하고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강해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인수합병 이후 첫 상선 수주로 시장 경쟁력을 확인했으며 조기 경영 정상화의 초석을 놓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상선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지속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현대커머셜

상용 구매 프로그램 운영

현대자동차가 상용차 고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대차는 10월부터 현대커머셜과 손잡고 ‘상용 구매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상용 구매 금융 프로그램은 월 할부금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국내 업계 최초로 마련한 초장기 할부(대형 트럭 최대 120개월) ▲할부 금리 인하(대형 트럭 최대 0.9%p 인하) ▲버스 표준 할부 신설(최저 금리 4.8%) 등이 핵심이다.

현대차와 현대커머셜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고 트럭 운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 운전 히어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안전 운전 히어로 프로그램은 현대차 준대형 트럭 파비스 구입 고객 중 안전운전 히어로 서약서를 작성한 200명을 대상으로 할부 금리 0.5%p를 즉시 인하해 주고, 가입 1년 후 안전 운전 점수 65점 이상을 획득한 고객 대상으로 할부 금리 0.5%p를 추가 인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현대차와 현대커머셜은 고객들의 안전 운전 습관 정착을 통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화물차 사고를 감소시키고,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할부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현대차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돼 오던 상용 멤버십 프로그램을 승용과 상용 구분 없이 블루멤버스로 통합하고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양성운 기자

르노삼성, 2022년형 ‘SM6’ 출시... 편의기능 대폭 강화

이지커넥트 등 서비스 업그레이드
TCe 260모델 2386만원~2975만원

르노삼성자동차 SM6가 더 편하고 쉬워진다.

르노삼성은 5일 2022년형 SM6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SM6는 편의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 했다. 인카페이먼트와 안전지원 콜서비스, LTE 통신 기반 이지커넥트 등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한 것. 이를 통해 주유와 CU 편의점 등 가맹점 결제, 사고 처리 등도 더 편리해졌다.

또 클러스터 화면에 지도와 경로를 표시하는 맵 인 클러스터와 밝기를 조절하는 ‘LED 매트릭스 비전 헤드램프’ 등 기능이 이어졌다.

주행 성능도 그대로다. 지난해 7월 부분변경과 함께 새로 탑재했던 TCe 260과



SM6 2022년형

/르노삼성자동차

TCe 300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 및 2.0 LPe LPG 액상분사 엔진을 그대로 적용했다. 특히 TCe 300은 고성능 브랜드인 알핀과 RS 모델에 사용되는 모델로, 최고 출력 225마력에 최대토크 30.6kg·m을 내며 역동적인 주행을 가능케 한다.

실내 인테리어도 나과 가죽과 날개형상 프렉스티지 헤드레스트, 이지액

세스 시트와 마사지 시트 등 안락하고 편리한 기능들을 대거 이어받았다.

아울러 이번 연식변경 모델은 트림별 기본 사양도 재구성했다. 주력 트림인 TCe 260 LE는 동승석 파워시트, 앞좌석 통풍시트 및 이지엑세스 등의 시트 편의성, 최상위 트림인 TCe 300 PREMIERE는 차선 유지 보조(Lane Ce

ntering Assist), EASY CONNECT 9.3인치 내비게이션 및 BOSE 사운드 시스템을 기본 사양으로 추가했다.

가격은 트림별로 TCe 260이 2386만~2975만원, TCe 300이 3387만원, LPG 모델이 2513만~2719만원이다.

르노삼성자동차 김태준 영업마케팅 본부장은 “2022년형 SM6는 고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신규 기능을 추가하면서도 가격경쟁력을 더욱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더 많은 고객들이 검증된 품질과 상품성, 우수한 가격경쟁력을 지닌 SM6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U+ 생활안전케어 시스템 구축 속도

동국대 산학협력 업무협약

LG유플러스가 생활안전케어·공공시설안전·치안플랫폼 개발 플랫폼 개발에 속도를 낸다.

LG유플러스는 동국대학교와 스마트안전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안전케어란 IoT센서와 디바이스를 활용해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문화재 관리, 실종자 추적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치안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양측은 가칭 ‘스마트안전케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해 현장 실증·검증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강준혁 기자 junhyuk@

양측은 ▲노인·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전케어 실증사업 ▲지역사회 공공시설 안전 테스트베드 운영 ▲차세대 치안/안전 플랫폼 개발 등 3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안전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내 실증사업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레이더 센서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화장실이나 계단에서의 넘어짐 등 위급상황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노인들의 재실 여부나 위치 정보를 파악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동국대 캠퍼스에는 건물 옥상에서 발생하는 추락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구역 진입감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쌍용차, 티볼리 스페셜모델 ‘업비트’ 공개

고급 편의·안전 사양 기본 탑재

티볼리가 긍정 에너지를 더욱 강화한다.

쌍용자동차는 티볼리 스페셜모델 ‘업비트’를 새로 공개하고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업비트는 티볼리 최상위 모델로 개발됐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과 울림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름지어졌다.

업비트 주력 모델은 V3 및 A3를 베이스로 만들었다. 고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고급 편의사양과 안전사양을 기본적으로 상품성을 극대화하면서 티볼리 브랜드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와이파이 풀미러링과 9인치



티볼리 업비트

/쌍용자동차

HD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전면 장착했다. 통풍시트와 열선시트, 파워시트 등을 담은 콤포트 패키지와 하이패스 및 ECM 룸미러, 18인치 다이아몬드 컷팅휠 등도 기본 적용했다.

업비트 가격은 티볼리 2456만원, 에어 2586만원으로 책정됐다.

/김재용 기자

볼보

19일부터 ‘XC60’ 고객인도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품은 볼보자동차 XC60이 국내 도로를 달릴 준비를 끝마쳤다.

볼보는 5일 XC60을 공식 출시하고 19일부터 고객인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형 XC60은 지난달 14일 최초 공개했고, 2주만에 사전 계약 2000대를 돌파하며 높은 인기를 증명하는 바 있다. ‘토르의 망치’ LED 헤드라이트를 비롯해 고유의 디자인을 유지하며 3D 형태 아이언 마크와 새로운 범퍼 등 일부 디자인에 변화를 줬다. 내부 디자인도 크리스탈 기어노브와 바위스&월킨스 사운드 시스템 등 프리미엄 기능을 갖췄다.

특히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기반으로 새로 개발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를 처음 탑재했다. 티맵모빌리티와 300억원을 투자해 개발했으며, 티맵과 인공지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김재용 기자